

## 해외 언어·문화연수 후기

연수구분	2023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해외 언어·문화연수
연수기관	캐나다 McGill University
연수기간	2023. 8. 7. ~ 2023. 8. 25.
연수자	기계자동차로봇공학부 / 안현호

### 연수후기

안녕하십니까 이번 단기 해외 언어·문화연수에 참여하게 된 기계자동차로봇공학부 17학번 안현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학연수로 갔던 곳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McGill University입니다. 우선 몬트리올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후는 8월인데도 꽤나 쌀쌀했습니다. 낮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늦봄과 같은 날씨였으며, 밤에는 초봄에서 늦가을 같은 날씨로 얇은 외투를 입어야할 정도로 쌀쌀한 온도로 내려갔습니다. 날씨는 수시로 바뀌었는데, 맑다가도 갑자기 비가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가장 특이했던 것은 언어가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도 사용한다는 점이며, 프랑스어를 주 언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니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도 얽혀있으며, 캐나다에서 퀘벡주만 이렇게 사용합니다. 실제로 퀘벡주는 90년대에 캐나다에서 독립을 시도했으며, 투표까지 진행했었고, 1%이하의 차이로 독립에 실패했습니다.

도시의 분위기도 엄청 특이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부분이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드 몬트리올은 17세기 프랑스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몬트리올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은 현대적인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의 마을에는 조용한 시골의 분위기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건물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몬트리올 중앙에 위치한 '마운트 로얄'이라는 산이 있는데, 몬트리올의 건물들은 이 산보다 높게 짓지 못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유는 마운트 로얄에 있는 전망대에서 모든 도시를 한눈에 보기 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Mcgill 대학교에서의 수업은 오전수업과 오후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매일 새로운 본문이 주어지는데, 그 글을 전날에 다 읽고 아침에 와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이 참신하게 와닿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업을 주입식으로 듣는 방식으로만 진행했는데, 사실 영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어눌하더라도 직접 사용하고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전 수업이 끝나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conversation partner라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조를 나누어 몬트리올에 있는 주요 도시와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몬트리올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오후수업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몬트리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파트너에게 몬트리올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영어실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수업이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학우들의 국적에 있습니다. 이 수업을 받는 약 70여명 중에서 약 40명의 일본인, 20명의 멕시코인, 3명의 중국인, 그리고 저 이렇게 한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적으로 3주 동안 영어로만 대화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이유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 3주 동안 적극적으로 영어를 사용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학교의 다른 학우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그 학우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한 명만 간다고 한다면 영어실력 향상에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가치가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어학연수를 가는 학우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영어회화책을 챙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단어장만 챙겼었는데, 제가 간과한 것은 영어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나 토익을 위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학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장 간단한 내용을 영어로 표현할 때도 생각보다 힘들었고 이렇게 간단한 문장은 영어회화 책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러한 준비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후기를 보고 다음 어학연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간단한 영어회화 책을 챙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후기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수사진

